

 금융위원회	<h1>보 도 자 료</h1>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1.17.(화) 조간	배포	2017.1.16.(월)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 진 창(02-2100-2990)	담 당 자	최 치 연 사무관 (02-2100-2991)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02-2100-2610)		서 나 윤 사무관 (02-2100-2611)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 박 주 영(02-2100-2630)		박 경 덕 사무관 (02-2100-2637)	
	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 상 범(02-2100-2620)		오 유 정 사무관 (02-2100-2621)	

제 목 :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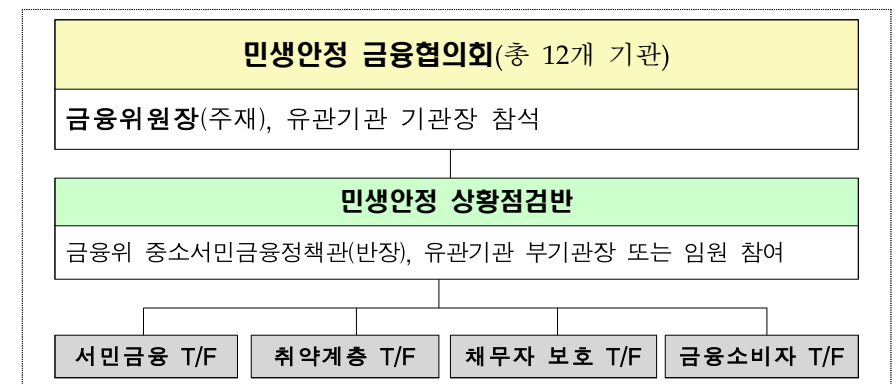
-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2017년 전체 업무보고(1.5일)」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상세브리핑(3차) 실시(중소서민금융정책관)
- ☐ 최근 대내외 금융 여건(금리인상·경기회복 지연 등), 서민금융 집중 점검('16.12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 선제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이용 전반에 걸쳐 신용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할 계획

➡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대 부문 12대 핵심과제」를 마련

서민금융 지원 강화	1. 사이트들 대출 확대 2. 정책서민자금 지원 확대 3.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	4.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5. 청년·대학생 지원 강화 6.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채무자 보호 강화	7.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 8. 채권추심 관리 강화 9. 채무조정 활성화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10.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11.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12.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

- ☐ 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이 주재하여 서민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 첨부 > 상세 브리핑자료 ③ :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참 고	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2대 과제(요약)
------------	----------------------------------

과제명	주 요 내 용	추진계획
사잇돌 대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규모 확대) 현재 총 공급목표 1조원 소진시 추가 1조원 공급 • (취급채널 확대)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저축은행 사잇돌의 중간 금리대(10% 전후)에서 사잇돌 대출 공급 • (대출대상자 확대) 채무조정 졸업자에 중금리대출 지원(사잇돌 대출 2조원과 별도로 1,500억원 공급) 	('17.1분기) 대출대상자 확대 ('17.2분기) 취급채널 확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햇살론·새희망홀씨·바뀌드림론의 연소득 요건을 5백만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3.5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4.5천만원 이하(6등급 이하) • (지원한도 상향)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희망홀씨 : 2,500만원 → 3,000만원 * 햇살론 : 1,000만원 → 1,500만원('16.12월) → 2,000만원 	('17.2분기) 지원대상 확대 지원한도 상향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이용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드이용자에 대해 연체금 감면 등 서민금융 지원 • (가맹점 지원) 영세·중소가맹점에 운영자금 지원 및 카드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보안성 강화 지원 • (공익활동) 학생·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등 지원 	('17.1월) 재단 설립 ('17.1분기) 재원 활용방안 마련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이용 실태조사) 전 금융권에 걸쳐 금융상품·판매 채널별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 (금융상품 가입차별 개선) 금융권별 차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전용상품 활성화 등 금융지원 강화 •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모바일·ATM, 금융회사 창구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17.1분기) 금융이용 실태조사 ('17년 상반기)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마련
청년·대학생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대학생 햇살론 확대) 생계자금 지원한도 확대 (예: 800만원 → 1,200만원),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예: 최대 2,000만원 / 금리 4.5% 이내) • (취업 연계) 정책서민자금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 알선 지원 	('17.2분기) 자금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

과제명	주 요 내 용	추진계획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17.2분기) 취약계층 맞춤형 상품 개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관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채무조정 강화)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의무화, 원금 감면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 강화로 실효성 제고 • (채권 관리 일원화) 모호한 상각기준을 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 관리 • (합리적 채권 관리)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 	('17년 상반기)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채권추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 구축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채무자가 무리한 채권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채권 매각 관리 강화 	('17.4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구축 ('17년 상반기) 채권추심 관리 강화
채무조정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 주요 저축은행 등에 확대 시행하여 대출만기 전 상환기간 연장 등 안내 •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 설정 등 	('17년 하반기)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권차등 불이익 해소) 제2금융권 대출 이용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 • (우량정보 활용 확대) 신용정보부족자(Thin-filer)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우량정보(통산·공공요금, 보험료 등) 반영 확대 	('17년 상반기) 종합 개선대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교육 강화) 청년층 부채·신용관리, 은퇴준비 근로자 노후자산관리 등 대상별·이슈별 금융교육방안 마련 • (청약철회권 확대) 대출상품 등에 우선 시행중인 금융상품 청약철회권(Cooling-Off)을 여타 금융상품에도 적용 	('17.1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 및 금융교육 강화 방안 마련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수수료 공시) 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시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 및 체계를 공시 •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 판매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은 상품 판매시 별도 안내 	('17.1분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